

지식융합디자인 스튜디오

(PSEP504-01)

수업 중에 한 거 포트폴리오용 정리

1주차

- 매체미학 : 현대 사회에서 매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술과 매체의 관계, 매체에 의해 매개된 예술과 그것을 수용하는 수용자의 지각 간의 관계를 미학의 영역에서 탐구하려는 미학적 시도.
- Design :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, 그 과정의 결과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지성의 모든 행위
- 지식 - 매체와 연결된 산물.(지식, 기술, 문화 모두 매체)
 - ❖ 지식 : 이미 많은 지식들이 융합된 상태. => 인간과 세계와의 인터렉션(Interaction : 상호작용)
 - ✓ 조형적이고 미학적인 감각의 통일 된 구현.
 - ✓ 형태와 기능의 합리적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작업. 예) 마우스 - 그립 감, 타격 감 등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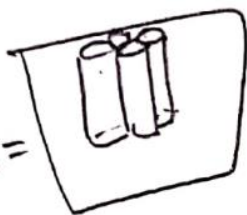
1주차

BMW tower .



건물지

20년후 1990년대
BMW = 최고 brand.



→ 4기통 실린더 모형 =
「독일 뮌헨 = 본사」



(The future is
electric)

전기차 = 테슬라. VS 주최

(나트막 신생 업체)

「BMW의 위상은 어디로?」

BMW 입장에서든 어마어마한 위기.

50) projection mapping
(3D 기법 적용)



「자신들의 전기차/ 미래 시장에서의
가능성 여쭙」



2주차

- Design : 조형적이고 미학적인 감각의 통일 된 구현.
- Designer : 1) desirability for human, 2) feasibility for technology, 3) viability for business.
- **Techene** : 인간 지성의 근원적 패턴
 - ❖ Technology의 어원
 - ❖ 다른 것들을 모아 꼬고 엮는 행위
 - ❖ 이질적인 것들을 융합 시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사유하는 행위
 - ❖ Physis : poesis(시)
 - ❖ 테크네(물리)의 지성적 패턴이 인간을 기억하고 내재화.
 - ❖ Physis(이과), posis(문과)의 어원적으로 깊게 파면 techne에 도달.

2주차

↳ '논리학, 동물학, 물리학' 이라는 체계 수준.

두꺼운 책 '제목' 없는 것 = 유산

「책이 meta-physics
ology (physics 앞에 있어서.)



= 자연스럽거나 이론적인 것을 표현
= 지식의 발전 단계.

공자 = '유교' 철학 개념.

↳ 인간이란 '선(善), 예(禮)'를 기반으로.

게기(禮)



반드시

백성, 신하는 윤리적으로 2개야
한다. (규범적).

(공자) = 2당시 아카데미 총수

↳ 대통령(왕) = 컨설턴트.

2주차

➤ Bureaucratism(관료제)

❖ Bureau : 책상, cratism : 신봉한다.

❖ 책상 내 앞에 있는 일만을 신봉한다.

(관료제 -> 공돌이 : 자신의 분야만 잘 안다.)

PSEP = 이전의 공돌이처럼 되면 안된다.	
↳ 북서가 자주 바뀌고 새로 생긴다	
「A → B → C → D」	
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	
어떤 대응 방법을 고려.	
Follower가 아닌 Mover가.	
No.	Date.

어떤 techné(생존)을 경험해왔는
지가 궁금?

↳ SK 그룹 = 사수 제1로 폐지.

「사수가 있으면, 내 자리/업득만 할
줄 아니까 (사수가 정해준), 그를 극복
하고 다방 뻗어서 능력력이 필요하거

여 (techné) 사수제도 폐지.

∴ 실질적인 것을 무언가를 만들기
위해서. (마케팅 + 기술)

「공돌이 책상업! 고이는 것 방지」.

낯선쪽 제를 주도 잘 적용해서
이제 나같은 수임자를 제1로.

3주차

➤ 활동 : 기존의 상품에 대한 나쁜 점을 쓰고, 팀원에게 그 상품을 사용하도록 설득한다.

❖ 유저 매칭 채널 : 나는 이런 서비스는 안 쓴다.
예) '배민 어플'을 안 쓴다.

➤ 스탠퍼드 D스쿨 : 대중화

- ❖ **divergent thinking** : 예술적인 느낌, 상상력
- ❖ **Analytical thinking, intuitive thinking, convergent thinking** -> 자본주의

① 패시 콜라 = 탄산 ↓
② 배달어플 = 배달음식X. 「혼/건강」
③ 인터넷 신문 = X 「집중X」 → 종이신문
④ 스마트 워치 = 날기능 없이
비싸고, 폰으로도 땀방울
⑤ 애플 노트북 대체.
⑥ = 구조가 갤럭시와 너무 같다.
자전거 타는 맛 ↓
높은 바와 인
⑦ 레즈 → 복습해
내박

기공감 → ① 길 막는다. 「지나가는 사람」
 ② 부딪힌다. 「기다리는 사람」

↳ define = 사람이 너무 많아
 병목 현상.

중서기 = 배려나 이해를 못 해서 바지
 기다리는 것.

한정된 자원을 여러 파티로 나누고
 사람들의 모임.

↳ 중서기가 간섭과 방해로 인해
 기존의 자원이 없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.

한 번 바뀌면, 계속 바뀌어야 함.

→ 풀어
 통로 확보 유지

3주차

➤ D-school : 매뉴얼

❖ Empathy → Define → Ideate →
 Prototype → test

➤ 인간을 관찰하고, 공감하여 수요자를 이해한 뒤,
 발산, 수렴적 사고의 균형적 활동을 통해 혁신
 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(상상력 + 적극적인
 개연성 논리 : 귀취적 논리)

➤ 넋지 효과 : 서울시 괄호 라인 프로젝트

스마트폰이 많이 고마워다.
여행 갔을 때 사진기 역할은 ^{대신} 스마트폰이
같이 최대한 바나나기 도움도 주고,
지갑을 잘 관리 버리고, 현금도 작
안 갖고 바나는 내기, 토스와 피시버즈
지갑을 안 들고 바나나기 해주고
(주머니 거시기).
이동 시간이나 운동할 때
쉬는 시간이나 자루 바나나
바라고 기르기 복합로 해주고,
가전제품 사용법이나 책 해외 관광지
투기를 종리 실감 바나나 경험하고
정보를 전해주는 유튜브를 바나나
파워다.
love

break
그런데 2학기 많은 기능을 해준
서 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
너와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기쁘다.
너와 오랜 시간간절히
재미있지만, 그만큼 학업(해야 할 것)을
미루거나 잊어버려 마지막 날에 되어서
1) 못해서 화가나고 있어.
이별은 힘든 거지만, 장기적으로
반대의 효과를 시간을 줄여, 서로의
앞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
2학기 공부할 때라고 신재철 책을
읽어 봤는데, 그 책은 내가 봐도, 내주며
가 텅텅 비었는 거 같아.
『특수이론, 개념 같은 너』를 읽은
양네 사귀는 친구들한테, 정말
너를 위한 좋은 말이 부족해 있어.

➤ 러브레터와 breakup 레터를 통해 상품에 대한 경험, 장, 단점을 작성하는 활동

➤ 그 과정에서 나온 요소들을 관계자는 주목 할 만한 요소.

➤ 예) 무선 이어폰 : 옷(케이스),
노이즈 캔슬링
- 이전에는 케이스와 노이즈 캔
슬링에 시장성을 알지 못함.

4주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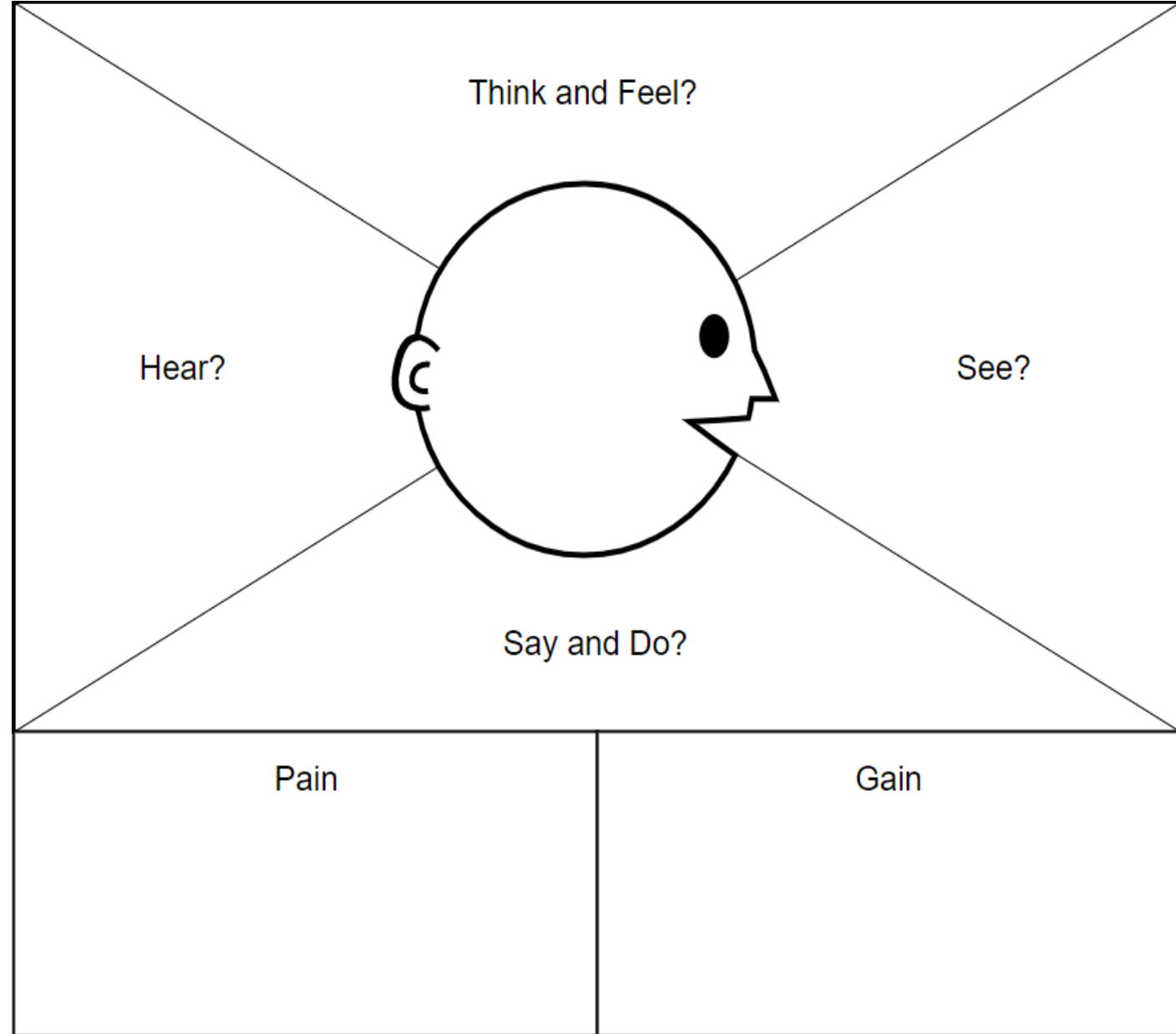
VR을 활용한 아이들 백신 접종



German Youth Association with hearing loss . Signs - AI

5주차(2022.10.05)

- Empathy Map:
 - Say - Think - Feel - Do Model
- 로봇카페 : 투섬, 테라로사에 위치



See?	Say and Do? : 고객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?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과 후 교육 받고 있는 학생, 수업 참관하는 학부모 • 서빙 로봇, 드론, 로봇 개 • 아이언맨, 트랜스포머 같은 피규어, k-pop 춤추는 로봇 • 로봇 동아리, 카페, 동호회 회원 • 카페에서 일하는 일바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“(서빙 로봇을 보고) 진짜 로봇이 커피 배달해주네.” • “(친구와 드론을 고르면서) 우리 드론 경주 경기 하자.” • 아이언맨, 트랜스포머와 같은 로봇을 상징하는 피규어를 보고, 기념 사진 찍는 방문객 (do) • 로봇개와 산책하는 방문객, 자신의 개와 로봇개를 비교하는 방문객 (do)
Hear? : 고객에게 들은 것은 무엇인가?	Think and Feel? : 고객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?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 로봇 어디서 사요? 이 로봇 얼마예요? • “이거 어떻게 동작해요? 드론 어떻게 날려요?” • “로봇 관련 수업 언제 개강하나요?”, “한달 수강료 얼마인가요?” • “망가진 로봇 고쳐 주기도 하나요?”, “오래된 로봇이 소리가 동작할 때 소리가 나지않는데, 어떻게 관리하나요?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“(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개를 보고)저거 타보면 움직이려나?” : 로봇 발전에 대한 놀라움, 일자리 소멸에 대한 두려움 • 비싼 로봇을 보고 : 로봇 공학자나 해볼까?(장래고민) • 애견 카페와 달리 로봇이기에 음악보단 기계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고, 딱딱하고, 차가운 분위기 (feel)
Pain : 고객의 고통은 무엇인가?	Gain :고객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?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마시던 커피를 로봇에게 쏟거나, 드론을 날리다가 다른 것에 부딪치거나, 화장실 가다가 뺏아서 고가의 로봇을 망가뜨리지 않을까 하는 것. • (커피에 입장료 가격이 포함되어)스타벅스보다 기본 커피 값이 비싸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로봇 관련 커뮤니티 형성 • 로봇 구입 방법, 관리 방법에 대한 팁 • 산업 로봇 발전 동향 파악